

여자와 남자가 스포츠를 하면 누가 이길까?



서재철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여자와 남자 혹은 남자와 여자가 스포츠로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예컨대, 남자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여자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혹시 여자 골프 선수와 남자 골프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친다면 그 결과는? 그리고 여자팀과 남자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 어느 팀이 몇 점 차이로 이길까?

갑자기 웬 똥판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특정한 패턴의 기억을 일관된 흐름으로 기억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시절, 팔씨름부터 시작해서 닭싸움이나 피구, 혹은 싸움에 이르기까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전투'에서 누가 이길지 흔히 내기 해보고 놀았던 것을 떠올리다가, 점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패턴 말이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필자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남자 아이들 대부분을 완력과 무력으로 자주 굴복시켰던 한 여학생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 글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서로 힘을 겨루고 신체 움직임의 수월성을 경쟁하고 놀았던 그 '순수한' 동심의 추억을 소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또한, 남자 아이들보다 근력과 체력 그리고 움직임이 뛰어났던 운동 잘하는 여자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보자거나, 혹은 여자 아이들보다 힘도 약하고 달리기도 느렸던 남자 아이들의 부끄러웠던 기억을 웃음 어린 추억으로 되새겨 보자는 것도 아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면서, 결론이 '뻔한' 쓸데 없는 질문으로 시간 낭비한다고 타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필자는 이 별 것 아닌 질문에 대해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왜냐하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 NAVER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고받는 이 질문과 대화 속에, 우리가 무심코 뿌리박아 놓고 거둬 만들어 내는 양성불평등의 무늬가 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맛보는 영화 한편, <빌리 진 킹: 세기의 대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화 한 편으로 준비 운동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영화 속에 은근히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들도 많은 법이다. 필자가 소개할 영화는 바로 <빌리 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영화다. 2017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1973년 미국의 현역 여자 테니스 선수인 빌리 진 킹과 은퇴한 남자 테니스 선수 바비 리克斯 간의 실제 있었던 경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 대결’(Battle of the Sexes)이라는 이름의 수식어로 묘사된 바 있는 이 경기는 미국에서만 4천 8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9천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었다. 단순한 이벤트성 경기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고 있던 여성 인권 운동에 불을 지핀 거대한 불쏘시개와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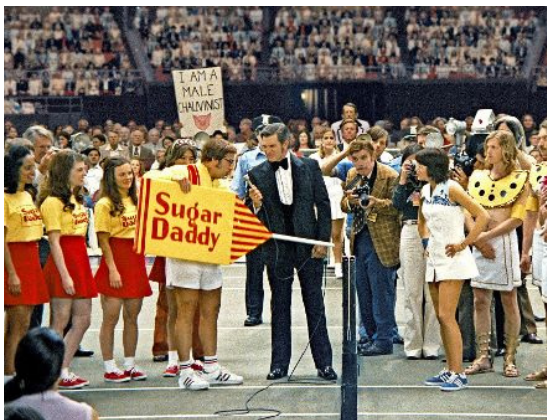
영화 속 줄거리는 이렇다. 55세의 바비 리克斯는 그랜드 슬램 우승 6회의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1940년대를 평정한 왕년의 테니스 스타였지만, 은퇴 후 도박 중독에 빠져 삶의 무료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항상 여자 테니스 선수들을 무시해왔던 바비 리克斯는 우연히 빌리 진 킹이

여성 최초로 연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고, 자신이 뛰고 있는 남자 시니어 투어의 상금이 여자 프로테니스대회보다 작다는 것을 불평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여자 선수와 경기를 해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과시한다. 결국, 바비 릭스는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돈도 벌 겸, 빌리 진 킹에게 승부를 제안한다.

1972년 US 오픈 우승자로서 세계 랭킹 1위를 향해 달리고 있던 빌리 진 킹은 여자 테니스계의 스타 선수이지만, 여자 테니스 대회의 상금이 남자 테니스 대회의



© Photos.com by Getty Images™



© Photos.com by Getty Images™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불평등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 테니스 협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여성 인권 운동하기도 하다. 바비 릭스로부터 경기 제안을 받은 빌리 진 킹은 시합이 아니라 쇼에 불과하다며 서커스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바비 릭스는 전년도 여자 챔피언 마가렛 코트에게 접근하여 설득하고 둘 사이의 경기가 성사된다. 결과는 6 대 2, 6 대 1, 세트 스코어 2 대 0으로 바비 릭스의 압승. 경기가 있었던 날이 어머니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머니날의 암살’로 장식되었다. 마가렛을 이긴 바비 릭스는 수위를 높여 더욱 집요하게 빌리 진 킹을 자극하며 조롱했고, 결국 빌리 진 킹은 여자 테니스와 여권 신장을 위해 경기를 벌이기로 한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9월 20일, 텍사스 주의 미국 4대 도시 휴스턴에서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쉽겠지만, 이 글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질문

영화 예고편 한 편을 감상했으니, 이제 슬슬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특히,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우리 모두 심심풀이 땅콩의 차원을 넘어 조금 진지할 준비를 해보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왜 스포츠의 세계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남자는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경쟁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왜 여자 테니스와 남자 테니스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일까? 남자 육상과 여자 육상, 여자 축구와 남자 축구, 남자 역도와 여자 역도 등 거의 모든 스포츠들이 이렇게 성별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예컨대, 배구의 경우,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남자와 여자가 혼합된 두 팀이 경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축구도 여자 6명과 남자 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두 혼성팀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컨대, 우리는 왜 스포츠에서 ‘성 분리(sex segregation)’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이러한 ‘성 분리’를 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잠시 바비 리스를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1970년대 초 남자 테니스계를 주름 잡았던 지미 코너스라는 선수를 생각해보자. 질문 하건대, 빌리 진 킹과 지미 코너스가 경기를 했었다면 누가 이겼을까?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잠시, 질문을 다시 조금 바꿔보자. 빌리 진 킹과 지미 코너스 둘 중에 누가 더 우수하고 훌륭하고 좋은 선수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른 스포츠에도 비슷하게 적용 해볼 수 있다. 예컨대, 남자 100m 세계신기록(9초 58)과 여자 100m 세계신기록(10초 49) 중 어느 기록이 더 우수한 기록인가? 여자 높이뛰기 세계신기록(2.09m)과 남자 높이뛰기 세계신기록(2.45m) 중 어느 기록이 더 훌륭한 기록인가? 그리고 남자 50m 자유형 세계신기록(20초 30)과 여자 50m 자유형 세계신기록(23초 25)은 또 어느 것이 더 좋은 기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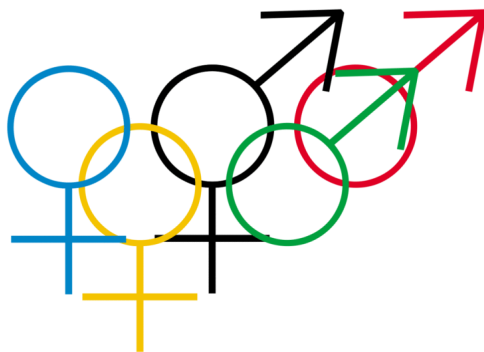
스포츠에서의 ‘성 분리’: 여성의 배제를 통해 남성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역사의 흔적

필자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첫 번째 질문에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교수님,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력의 크기도 다르고 체형도 달라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 끼리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자가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팀을 만들어 경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다시 물으면,

학생들은 “여자들이 다칩니다”라고 대답한다. 설문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패턴의 대답을 할 확률은 95% 신뢰수준 이상에 표본 오차 3% 이하 정도로 확실할 것이다. 거의 확실적인 수준으로 학생들의 대답은 똑같다.



© <http://education.nswtf.org.au/education29/news-and-features-9/your-say1/>



© <https://www.startalkradio.net/show/gender-in-sports-with-joanna-harper/>

그러나 스포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 분리’의 의미가 살짝 ‘아’ 다르고 ‘어’ 다름을 알 수 있다. 신체 활동을 동반하는 비-조직적 여가활동(unorganized leisure activities)이 ‘스포츠’라는 하나의 문화적 실체, 즉 조직화된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된 시기와 배경은 19세기 중반 영국의 퍼블릭스쿨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개혁의 움직임 속에서였다. 당시에는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거대한 젠더 구조 아래, 남자와 여자의 분업을 이상적인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며 살던 시절이었다. 가장 강력했던 분업의 철칙이 바로, 남자는 집 밖(남성성의 공간)에서 노동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집 안(여성성의 공간)에서 가사 및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젠더의 원칙이 흔들리면 곧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아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 스포츠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간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강인한 남성다움을 이식시키고 주입시키기 위해 발명한 신체 활동의 교육적이고 제도적인 문화였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남성성의 강화가 여성성의 배제를 전제해야 달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이루어진 4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낮 시간 동안 집 밖, 즉 남성들과 관계하는 남성성의 공간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집 안, 즉 가사와 교육이 필요한 여성성의 공간에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생활한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아들과 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는가? 당시의 아버지들은 엄마 옆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들이 남성성을 잃고 여성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했었다. 그래서 당시의 아버지들은 사라져가는 아들들의 남성성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동반한 여가 형태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제도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기원이다. 즉, 남성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스포츠의 등장은 남자 아이들을 여성들 혹은 여성성의 공간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상해보건대,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조금 다를 것이다. 가령, 아버지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아들들을 모아서 축구를 같이 하거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갑자기 각 집안의 딸들이 자신들도 축구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와 오빠 혹은 남동생을 따라나선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현대의 아버지들은 딸들도 함께 데려간 다음, 아들과 딸들을 함께 섞어서 축구를 같이 하거나 또는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150여 년 전, 근대의 시대를 살아간 서구의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딸들을 데리고 가는 순간, 아들들을 강한 남성으로 키우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도 오빠랑 남동생처럼 축구(스포츠)를 하고 싶어 했던 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하는 수 없이 딸들도 결국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간 아버지들은 함께 데려간 그 딸들을 아들들의 모임 속으로 섞어서 함께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데리고 간 딸들만 따로 모아서 축구(스포츠)를 가르쳤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 아들들이 원만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남성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조금 씁쓸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스포츠에서 ‘성 분리(sex segregation)’가 시작되었고, 또 계속해서 내려져 온 젠더화된 스포츠 역사의 한 모습이자 무늬이다.

스포츠에서 여성은 열등한 성인가?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필자의 학생들은 두 번째 질문에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교수님, 남자 세계기록과 여자 세계신기록 둘 다 좋은 기록이고 우수한 기록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남자 기록이 더 좋고 우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별다른 고민 없이 남자 기록과 여자 기록은 비교할 수 없이 둘 다 좋은 기록이라고 답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대로 무조건 남자 기록이 더 우수한 기록이라고 답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둘 다 좋은 기록임을 인정하면서도 남자 기록이 여자 기록보다 더 좋고 우수하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의 차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빠르고 느림’ 그리고 ‘높고 낮음’은 객관적인 양태를 지시하는 표현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빠른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느린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높고 낮음 역시 마찬가지다. 높은 것이 의미 있을 때가 있고, 낮은 것이 가치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시선을 ‘스포츠’라는 현실/실제로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진다. 올림픽의 표어, 즉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강하게)’의 이상과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강렬하게 소통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현실/실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성별과 관계없이(!) 그저 ‘빠른 것’과 ‘높은 것’, 그리고 ‘힘차고 강한 것’이 더 좋고 우수한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게 만드는 인식의



박소영 인턴기자 20110728
yonhap_graphics@(트위터)

© <https://www.yna.co.kr/view/GYH201107280002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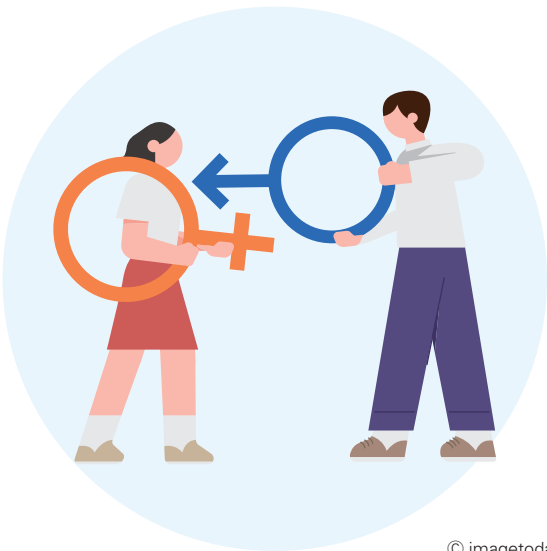
마취제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 (필자 역시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보다 빠르고 높고 강한 것’을 지향해온 것 그 자체도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19세기 후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상심한 한 프랑스 백인 백작의 아들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프랑스 청년들의 강인한 남성다움을 지향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높고 강함’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자신을 낮춰가며 서로 이해하는 겸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다 낮게’의 가치를 지향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과 맥락 속에서, ‘높이 뛰기’가 아닌, ‘림보’라는 종목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20세기 초, 제국의 시대를 맞아 올림픽은 서구 열강들의 민족적 우수성을 서로 자랑하는 거대한 문화적 축제로 성장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찾아온 냉전의 시대 속에서 양 진영의 우수성을 시연하는 과학·기술 전쟁의

플랫폼으로, 이어서 다시 1984년 LA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난 부와 경제적 가치의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스포츠가 발전해 온 그 거대하고 웅장한 역사 속에, 바로 그 ‘림보’라는 종목도 함께 존재해 왔다고 가정해 보자. 1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남자 림보 세계신기록도 쌓이고, 여자 림보 세계 신기록도 축적되었을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해보자. 남자 림보 세계신기록과 여자 림보 세계신기록 중 어느 기록이 더 좋고 우수한 기록인가?

스포츠 세계 속에는 항상 경쟁이 있으므로, 대결의 구도는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매개로 벌어지는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무릇,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두 성이 ‘차이’와 ‘다름’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양성 불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우등과 열등으로 구분되는 ‘위계’와 ‘서열’의 관계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7가지 색깔 그리고 음계의 7음들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이다. 그래서 무지개와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빨강이 가장 뛰어난 색깔이라거나 ‘도’ 음이 가장 중요한 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색깔과 음들의 관계는 위계와 서열의 관계로 바뀌는 불평등한 관계가 되어버릴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차이와 다름의 관계인가, 아니면 우등과 열등으로 구분되는 위계와 서열의 관계인가?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 둘 중 어느 몸이 더 좋은 몸인가? 남자의 움직임과 여자의 움직임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 움직임인가? 필자 역시 체육을 수십 년간 가르쳐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 imagetoday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간에는 서로 뒤섞여서 차이와 다름의 관계로 공부하다가, 체육 시간만 되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된 다음, 다시 위계와 서열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 남학생들은 자신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성으로,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신들을 남학생에 비해 더 열등한 성으로 자기정의하면서 내면화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체육과 스포츠는 여성과 남성을 차이와 다름이 존재하는 평등의 관계가 아닌, 위계와 서열의 불평등한 관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 양성평등의 이슈/문제는 특정한 정답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암기해서 실천하면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평등과 불평등

인지에 관한 쟁점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해답들이 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해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필자가 살아갈 세상 뿐만 아니라, 필자의 두 딸들이 살아갈 세상에도 현명하고 아름다운 해답들이 잘 만들어져서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짐해본다. '나는 남자고, 두 딸과 함께 사는 남편이자 아버지며, 스포츠와 체육학을 통해 양성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페미니스트다!'

GENDER EQUALITY IN SPORT



© <https://olympics.com/ioc/gender-equality>